

지역 소식통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2차 모집

부안군은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포럼 및 부안군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사례이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요구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과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월 1차 모집에 이어 4월 5일(화)부터 8일(금)까지 4일간 2차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세~39세(1982년생~2002년생)이면서, 기종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소용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월 최대 1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부안=김석진기자

통합·희망·미래 선거 제안

유기상 고창군수, '사실 바로알리기'·'선거법 위반 수사의회' 등 초강경 대응



고창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선거문화를 크게 후퇴시키는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군민통합과 미래를 위한 깨끗한 선거, 선의의 정책 경쟁선거를 제안했다.

지난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민선 7기 폐회 의도를 가진 문자메세지가 무차별 살포돼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문자메세지에는 고창군 국가예산 최대회보' 홍보가 새빨간 거짓이다' 하위사실을 날조해 자동문자로 대량발송하며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과 '국고보조금'은 엄연히 다른 항목이다. 국가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책·유관기관(국가기관 등)의 사업비를 포함한 것으로 올해 기준 고창군 국가예산은 1661억원으로 민선이래 최대 확보액이다. 이는 정부예산과 전북도 증가율(정부 8.9%/전북 8.1%)을 웃도는 13.3%대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이다.

결국 해당 문자메세지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서 상의 국고보조금의 차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주민혼란을 부채질하였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예산확보 의정보고회에서 전년대비 13.3%상승(전년 1466억원)의 성과를 보드한 바 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에 애써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정지권, 고창군청 신중앙부처 항우공무원, 고창군청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하한 악의적인 행태다.

통상 지자체 예산의 성과비교는 4년 임기 전체를 놓고 하고 있다. 민선 7

기 말 예산액은 7,222억원으로 4년 전 민선 6기 말(5,576억원)에 비해 29.5%가 늘었다. 4년치 예산의 총액 역시 민선 7기 235,649억원으로 67(1,399,201억원)과 비교해 37.9%(7,298억원)가 증가했다. 2020년부터 인건비 단위로 1인당 평균 705만8,000원을, 민선 7기에는 1,204만9,000원을 투자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이처럼 '아니면 말고'식의 악의적 허위·비방 문지에 고창군은 공식선거법 제2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의회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구태의연한 네거티브로 혐오를 조장하고, 군민을 갈라치기하는 분열선거는 안된다"며 "통합과 희망, 미래를 이어가는 깨끗한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사즉생 각오로 확 바꾸겠다”

부안군의회 김성수 전 의장, 민주당 부안군수 후보 출마선언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이 지난 31일 부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부안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사즉생 각오로 부안을 확 바꾸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선 8기 부안군수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부안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어 부안을 확 바꾸는 심령나는 부안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출마 예비후보를 등록한 김 전 의장은 부안군의회 제4대 부의장 제대 의장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넓은 포용으로 처리하며 검증된 대인 역량과 강한 추진력으로, 부안군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무능과 비리로 공성과 정의를 무너뜨린 부안군을 바로 세우려 군민이 잘사는 행정환경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새로운 혁신과 변화로 부안 발전 6대 공약으로 ▲"격포-위도"간 연육교 건설로 천혜의 관

광자원인 위도를 개발하여 침체된 관광산업 육성 ▲청호저수지 및 고마저수지를 국내 최대 수변관광 테마파크로 개발 ▲고창사랑기부체와 연계한 친환경 로컬푸드유통복합 농특산물센터 건립 ▲농업유복합 6차산업 지원 확대 및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 ▲지역일자 및 소상공인만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맞춤형 지원 ▲전군민 건강케어 의료복지지원금 지급 부안군민 전체 5만1,000명에게 연간 1회 10만원을 지원해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장경쟁력 강화

정읍시, 벼 적정 재배면적·농업소득 증가 동시 도모



논 타작물 재배 선도 도시인 정읍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논 콩 재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쌀 생산량 감축을 통해 쌀값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여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9,300만원이 투입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공급과잉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해 시는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논 타작물(논 콩) 재배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대상 농지는 총 156ha로 18~21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또는 21년 벼 재배 농지다. 대상 품목은 콩 1종목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지원 단가는 1ha당 60만원(㎡당 60원)이 지원된다.

특히, 시는 논 콩 재배 기반 유지를 위해 농가 희망 물량에 대해 전량 매입할 예정이며, 논 콩 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6월부터 11월까지 이행점

검 후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시는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쌀 적정 생산 추진단을 구성하고, 새해 농업인 교육과 이장 회보, 각종 리플릿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논 타작물(논 콩)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539-6233)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논 콩 재배면적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논 타작물(논 콩) 재배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38 농가를 대상으로 128ha 7,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사무소 개별 방문 환영... 지역발전 의견 달라”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온라인 개소식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1일 페이스 북 라이브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선거사무소를 실시간으로 직접 소개하는 온라인 개소식을 가졌다. 이 예비후보의 비대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해 시민들은 '코로나 시대의 선거풍토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는 바람직한 모습이다'며 "이런 현상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당초 4월 초 정읍시 중앙로 전북은행 인근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기로 준비했으나 정읍시의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준비하던 개소식을 취소하고 비대면 개소식을 갖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대면 개소식을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각오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 JT V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 전 사회자였던 임정용씨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개소식에서 이 예비후보는 중앙로와 새만로를 잇는 삼각지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 대해 "과거 화려했던 구도심이 최근 침체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구도심이 변형의 길을 걷게 하고 싶은 생각에서 사무소 위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 개소식 말미에 "대규모 초청 개소식은 취소했지만 선거사무소를 정읍 발전을 위한 이야기꽃이 피는 소통의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니 개별적인 방문은 항상 환영한다"면서 시민들의 주저 없는 방문을 주문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1일 페이스 북 라이브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선거사무소를 실시간으로 직접 소개하는 온라인 개소식을 가졌다. 이 예비후보의 비대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해 시민들은 '코로나 시대의 선거풍토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는 바람직한 모습이다'며 "이런 현상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당초 4월 초 정읍시 중앙로 전북은행 인근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기로 준비했으나 정읍시의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준비하던 개소식을 취소하고 비대면 개소식을 갖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대면 개소식을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각오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 JT V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 전 사회자였던 임정용씨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개소식에서 이 예비후보는 중앙로와 새만로를 잇는 삼각지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 대해 "과거 화려했던 구도심이 최근 침체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구도심이 변형의 길을 걷게 하고 싶은 생각에서 사무소 위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 개소식 말미에 "대규모 초청 개소식은 취소했지만 선거사무소를 정읍 발전을 위한 이야기꽃이 피는 소통의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니 개별적인 방문은 항상 환영한다"면서 시민들의 주저 없는 방문을 주문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임자들 부실경영·범죄혐의 수사 의뢰 촉구”

장학수 정읍시립조합장, 고용부·정읍시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정읍시립조합 장학수 조합장이 지난 달 31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자들의 장부(전산)에 기재되지 않은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부당한 예산전용, 분식회계 및 배임 등 영터리 조합운영 사례들을 공개하며 총체적 부실경영과 범죄혐의에 대하여 내부 감사들에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장 조합장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렸던 이사와 28년간 영터리 회계사무를 봤던 직원은 부정회계운영을 질타하고 중앙회에 감사와 징계까지 요청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신임조합장을 인격살인 하기 위해, 그래서 자신들의 범죄혐의와 영터리 회계를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하여 모 지역방송에서 조합장의 감질로 65명의 직원이 퇴사했다는 허위사실이 헤드라인뉴스로 8일동안 8번이나 방송되는 진기록이 세워졌다"고 밝히며 올바른 방송과 언론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로 인해 장조합장은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기득권자들은 방송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증거자료라고 제출하며 고용노동부와 정읍경찰서에 장 조합장을 수십가지 허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 되었다고 밝히며 취임 후 3년간 어금니까지 빠지면서 사달렸던 고통등, 소회를 밝혔다.

장 조합장이 밝힌 전임자들의 부실경영 행태는 총 출자금이 60억에 불과한 조합에서 중앙회에서 10억원의 빚까지 얻어 70억 원을 투입해 만든 입산물유통센터의 사업실패를 감추기 위해 결산서를 분식회계 했고 출자배당금을 초과 배당하였으며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는 작성도 하지 않았으며 장부(전산)에는 기록도 하지 않고 물건을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배임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 영터리 회계가 심각하였다며 분식 및 배임 등 부당한 예산전용으로 총체적인 부실경영을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들은 영터리 회계운영을 조합원들께 사실대로 알리려는 신임조합장에게 알리지 마라고 겁박하며 감추기에 급급했고, 장조합장이 예정대로 발송하자 조합장이 말을 듣지 않고 독선적이다"며 오히려 언론을 통해 수십가지의 허위사실로 장학수 현 조합장을 고소하여 뒤집어써우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임 이사들의 잘못된 관

다므로 만들어진 입산물유통센터의 4년간 적자 누적금액이 13억9천만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이사는 한명도 없고 한술 더 떠서 이사들은 명절 때 선물을 더 달라고 강요하였고, 경영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들은 이사들의 잘못된 요구를 알면서도 이를 침묵하고 직무무를 유기하면서 조합이 더욱 혼란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임자가 70억을 들여 건립한 입산물유통센터가 2018년 -5억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여 적자를 축소하였고,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값야할 빚이 10억이나 남았었는데도 빚 먼저 갚으려는 안하고 조합원들에게 당하는 듯 보호해주다 보니 기고만강해진 문제직원은 조합장의 업무지시 거부를 반복하고 있다"고 고소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립조합 장학수 조합장이 지난 달 31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하나는 듯 보호해주다 보니 기고만강해진 문제직원은 조합장의 업무지시 거부를 반복하고 있다"고 고소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정읍시민 재생금융 추진하겠다”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정읍시민의 인생 제2도전을 골자로운 제 호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펼치고 있는 정책은 소비자위험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쿠폰제 등을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시민들이 회복할 수 없는 경제 위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읍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수많은 소상공인의 파산을 막지 못했다"며 "파산한 소상공인들은 많은 부

채와 함께 신용불량으로 금융권 대출 등이 모두 막히는 현상이 농업인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파산 등 경제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정읍시의 소중한 시민"이라며 "이들의 제2도전을 돕는 것이 아깝로 차기 시장의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 홍보 UCC 공모전 열어

정읍시가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은 정읍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읍시가 내건 오향(五香)이 주축인 정책사업이다.

정읍의 향기를 뜻하는 정향(井香)과 온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누리를 합성한 정읍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

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정읍의 오향은 인향(人香), 성향(聲香), 주향(酒香), 미향(味香), 화향(花香) 등으로 정읍의 역사와 문화, 인물, 전통주 등을 아우르는 단어다.

즉,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 정체성을 높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취지다.

/*정읍=김대환기자